

문학치료적 관점으로 본 영화 '죽여주는 여자' 소영의 서사분석 -소외된 노인의 문제와 죽음의 의미를 중심으로-

장경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예술치료학과 박사

Epic Analysis of So-Young's Movie 'The Woman Who Kills' from a
Literary Therapy Perspective
-Focusing on the problem of the alienated elderly and the meaning of death-

Kyung-hee Chang

A Ph.D. in Literature Therapy at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요약 본 논문은 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의 문제에 주목하여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노후준비와 죽음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 '죽여주는 여자'의 주인공 소영의 서사를 중심으로 작품 속 맥락에 따라 문학 치료 관점으로 리뷰 분석한다. 영화 속 작품 서사에는 빈곤, 질병, 치매, 외로움, 죽음의 두려움 등 노인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의 소외된 노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사회적 관심과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노후설계를 통한 구체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노후준비 및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과 죽음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노인문제, 노후준비, 죽음준비, 좋은 죽음, 웰다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ay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the elderly in our society, which is facing an aged society, to understand the lives of the elderly and to recognize the need for retirement and death preparation. It reviews and analyzes the story of So-young, the main character of the movie "Killing Woman," according to the context of the work. The narrative of the film illustrates the problems of suffering for the elderly, such as poverty, disease, dementia, loneliness, and fear of death. In the face of the ultra-aged era,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measures for underprivileged senior citizens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established, and social interest and safety nets should be secured, and specific retirement preparations are needed personally. Furthermore, support for research and education of old age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s and death education programs to prepare for retirement and death should be continuously provided.

Key Words : Elderly problem, Elderly prepare, Death prepare, Good death, Well-dying.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Chang(386hee@hanmail.net)

Received February 15, 2021

Accepted March 20, 2021

Revised February 25,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1.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층 인구는 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노년 인구 비율이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이러한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인구 중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은 2020년 16.0%에서 2021년 19.6%로 단독가구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2].

급격한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노인들의 빈곤과 외로움과 자살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과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3]. 국가와 사회의 노인복지정책과 안전망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며, 노년의 삶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나아가 개인적으로도 노후를 위한 준비가 절실히 요구 된다.

본 고에서는 노인 문제를 다룬 영화 <죽여주는 여자> (2015. 이재용)¹⁾의 작품 서사와 주인공 소영의 서사적 삶을 주목하여 노인의 문제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 스토리의 맥락에 따라 문학 치료적 관점에서 서사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소외된 노인들의 혹독한 삶을 따뜻한 시선과 유머로 생동감 있게 표현한 영화 <죽여주는 여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죽음을 이야기한다. 우리 시대가 당면한 고령사회 노인들의 문제 중 삶보다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노인들의 삶에서 과연 그들에게 죽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작품 속 맥락에 따른 소영의 서사 분석을 통해서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죽음성찰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영화의 작품 서사가 관객에게 제시하는 내용의 순서에 따라 인물 주인공 소영의 서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이재용 감독의 영화 <죽여주는 여자>는 제6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제20회 몬트리올판타지아국제영화제 각본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고, 伊 아시아티카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 홍콩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 초청받으면서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다.

영화 <죽여주는 여자>의 내용을 주요 사건에 따라 시퀀스를 나누어 작품 서사의 내용에 따른 소영의 서사를 중심으로 문학 치료적 관점으로 노인들의 삶과 죽음을 리뷰 분석한다.

3. 영화 <죽여주는 여자> 주인공 소영의 작품서사 맥락에 따른 서사분석

작품 서사는 스토리 차원의 서사를 말한다. 작품 서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소설, 영화 등의 서사물로 표현될 수도 있다. 그것을 분석해서 심층의 스토리 논리를 밝힌 것을 작품서사라고 한다. 영화 속 내용 맥락에 따라 소영의 서사 분석은 다음과 같다.

3.1 윤호와의 만남과 돌봄

소영이 산부인과 검진을 가서 진단을 받는다. 병원에서 진료 받고 나오던 소영은 병원 원장에게 필리핀 여자가 찾아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친자 확인을 요구하다 격분하여 원장을 흥기로 찌르고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광경을 목격한다. 엄마를 잃고 오갈 데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필리핀 여자의 아들 윤호를 소영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다. 엄마와 떨어져 소영에 이끌려 온 윤호는 한국 말도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안 되고 밥조차 먹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 윤호를 소영은 정성을 다해 돌보고 보호한다.

첫 시퀀스의 내용에서 소영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고 이 아이를 돌봐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소영은 미군 흑인 병사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 그 죄책감과 미안함이 평생 가슴에 남아 있는 자기서사와 조우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영이 산부인과 병원에 치료차 갔다가 난처한 상황의 오갈 데 없어진 코피노²⁾인 윤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영이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요청을 받은

2) 코피노(Kopino)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필리핀에서 이르는 말이다. 코리안(Korean)과 필리피노(Filipino)의 합성어이다. 필리핀에서 필리핀여자와 놀아나다가 아이를 낳고 도망 온 한국남자들이 많음을 영화는 '코피노'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베트남전에서 베트남여자와 사랑하다 아이를 낳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여자와 아이를 돌보지 않는 한국남자들의 2세인 라이타이한과 같은 의미이다.

것이 아니었음에도 스스로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윤희 엄마와 윤희를 돕는다. 윤희가 한국남자와 필리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코피노 혼혈아였기 때문이다. 소영의 아들도 자신과 흑인 병사 사이에 낳은 혼혈아였다는 것이 동일시로 자기 서사가 투사된 것이다. 소영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작품 서사에서 나오지 않지만 코피노 혼혈아인 윤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윤희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보호하는 것에서 소영의 과거 삶의 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이 자녀 감싸기 부모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서사 속 윤희를 통해 나타난 소영의 자기 서사는 문학 치료에서 인간관계의 방식에 따라 나누는 존재적 서사 중 사회서사의 가르키서사, 밀치기 서사, 되찾기 서사, 감싸기 서사 중 자녀 감싸기 상생 서사로서 윤희를 자기 아들과 같이 동일시하며 보호해주고 가족처럼 돌봐주게 된 것이다.

3.2 소외되고 질병 중에 있는 노인들이 겪는 삶의 비애

소영은 버스에서 오랜만에 우연히 옛 단골손님을 만난다. 그 노인을 통해 요양병원에 중풍으로 입원해 있다는 정 노인의 소식을 듣게 되고 요양병원에 문병을 간다. 건강할 때는 깔끔하기로 소문이 났던 정 노인은 정신은 멀쩡하지만 스스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마비가 된 몸을 비판한다. 아들이 있어도 잠깐 요양병원에 형식적으로 와서 잠깐 보고 갈 뿐이다. 소 대변도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나이가 많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으며 괴로워한다.

영화의 제목 <죽여주는 여자>는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성적인 의미의 매력 있고 실력 있는 여자로서 소위 성적으로 잘한다는 뜻의 끝내준다는 의미의 '죽여준다'가 하나이고, 사람의 자살을 도와주어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죽여준다'의 의미가 그것이다. 소영은 젊을 때부터 녹록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 식모, 여공, 미군기지 성매매를 전전하다 노년에 이르러 생존을 위해 몸을 팔아야 하는 종로 탑골공원에서 박카스 할머니로 그려진다. 주인공 소영은 비록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녀 스스로 당위성을 갖지 않으면 하기 쉽지 않은 일을 한다. 사회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으나 자기 자존을 가진 여자로 그려지고 있다. 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다고 작품 속 대사를 통해 표현한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 고통의 끝에 매달려 있는 노인들이 그녀에게서 위로를 받고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동병상련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뇌출혈로 쓰러져 목 아래 몸은 마비가 되어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정 노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어 한다. 문학이 곧 인간이며 인간이 문학이라는 문화 치료적 관점에서 보면[4] 작품 서사에 의해 문학이 정체성과 의의를 가지는 것처럼 한 인간의 삶은 그 심층에서 작동하는 '자기서사'에 의해 방향과 의미가 구성된다[5]. 정 노인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신도 의지할 이 없고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소영의 자기 서사가 사회 서사 감싸기 서사로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감싸기 서사는 도덕적 규범이나 법을 초월한 서사로서 상생의 서사이다.

3.3 첫 번째 죽음, 뇌출혈로 전신마비가 된 정노인을 죽여줌

정 노인 문병을 간 소영은 정 노인의 가족들에게서 "더 이상 돈이 없는 우리 아버님을 만나지 말라"는 오해를 받고 비참한 소리를 듣는다. 정노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소영은 정 노인의 병실로 다시 찾아간다. 대변도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못하며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 괴롭다며 "나 좀 도와 달라"고 정 노인은 눈물로 호소한다. 정 노인의 울부짖는 간절한 절규에 소영은 농약을 구입해서 정 노인에게 먹인다. 농약을 먹이자마자 정 노인은 즉사한다. 이후 소영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계단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온다.

소영은 정 노인의 부탁에 갈등을 했지만 자신도 처지가 같은 노인으로서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고 노인 세대가 갖는 고민을 자신의 일로 공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연민이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괴로움에 대해 느끼는 고통스런 감정이다[6]. 그 고통은 해당 되는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며,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가능성이 고통을 겪는 사람의 가능성과 흡사하다는 믿음이다. 즉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겪으리라고 예상되는 불행과 관련되어 있다. 나도 언제든 혹은 언젠가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과 취약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

구한다. 그중에 늙고 병든다는 것은 인간이 원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것이며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져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노인 문제의 증가 배경에는 산업화와 가족 형태 변화로 인한 가부장제의 쇠퇴, 변화된 인터넷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7]. 아직은 건강해서 박카스 아줌마로 노인들에게 성을 팔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소영도 정 노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가족들에게서 소외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처지의 독거노인인 것을 공감하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회복할 수 없는 만성질환에 시달리거나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 가중될 때, 그리고 아무런 삶의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노년의 삶이 지속될 때마저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인간의 존엄함에 대해 공감한 것이다.

소영은 노년의 질병과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오히려 더 노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보여준다. 나아가 죽음은 고통의 해방이며 끝이 아니고 새로운 자유라는 역설적 의미를 통해 병든 노인의 선택을 지지하고 도와주게 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노인의 고통에 공감은 가지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은 가장 불행한 죽음이며 누구도 진정으로 원하는 죽음이 아니다.

3.4 두 번째 죽음, 치매로 인해 자신을 잃어가는 박 노인을 죽여줌

소영은 옛 단골손님이었던 김 노인과 함께 치매에 걸려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쪽방 촌에 혼자 살고 있는 친구인 박 노인을 방문한다. 그 친구는 치매에 걸려서 금방 약 먹을 것을 기억하지 못해 다시 약을 먹으려 하는 등 기억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 박 노인은 친구를 못 알아보게 될 지경이 되면 나를 죽여 달라고 말한다. 김 노인은 의지할 데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될 친구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다며 자신의 친구를 편히 가게 해 달라고 소영에게 부탁한다. 망설이던 소영은 그 노인의 처지에 연민을 느낀다. 소영과 김 노인은 그 친구를 데리고 서울이 흰히 내려 보이는 바위산에 오른다. 큰 바위가 있는 정상에 도착하자 김 노인은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하고 소영은 그 친구를 계획한 대로 절벽 낭떠러지 끝에 데리고 가서 쓴다. 소영은 그 노인과 무언의 합의한 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노인을 살짝 뒤에서 민다. 박 노인은 바위 밑으로 떨어진다.

소영이 죽여준 두 번째 노인은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치매에 걸린 노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중 9%는 치매라 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다[8]. 혼자 사는 홀로 사는 노인이고 치매에 걸렸으나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치매는 고령사회를 맞이한 노인들의 걱정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소영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비윤리적인 고통을 감내하고도 이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갖은 고통의 크기를 자신의 일처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처자식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노인들을 자식들은 외면하며 돌보지 않고 사회의 관심에서도 밀려나 누구도 인간으로서 대하지 않는다. 문학치료학에서는 서사영역의 주체가 대상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맺어 나가고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가르기서사, 밀치기 서사, 되찾기 서사, 감싸기 서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9]. 사회서사 감싸기 서사는 옳고 그름의 규범 속에서 그 규범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밀치거나 가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규범을 초월하여 감싸기서사로 나아가는 것이다. 늙어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치매 노인을 보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공감한다.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외로운 그들의 소외된 삶은 죽음보다 고통스럽다고 호소한다.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고자 소영은 사회적 규범을 뛰어넘는 결정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노화로 인한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소외된 노인들과 돌봐줄 가족도 없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돌봄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5 세 번째 죽음, 혼자 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김 노인의 죽음

김 노인이 소영을 불러내어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맛있게 한다. 그리고 김 노인은 소영과 함께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좋은 호텔에 투숙한다. 아내와 아들을 먼저 잃고 외롭게 사는 김 노인은 혼자 죽을 생각을 하면 아득하고 무서워진다고 소영에게 하소연한다. 소영에게 그냥 옆에 있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잠들기 전에 약을 먹는다. 소영에게도 수면제 한 알 주며 한숨 자고 일어나면 된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소영은 옆에 누워서 숨을 거둔 김 노인을 발견한다. 김 노인이 소영에게 돈과 함께 봉투에 남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무리한 부탁으로 마음이 더 상하지는 않았을까 염치없는 나는 걱정 들기도 합니다.

나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작품 서사의 김 노인은 자식도 먼저 보내고 아내도 먼저 보냈다. 임종 시 함께 있어 줄 자식이나 아내도 없었다. 노인들이 원하는 좋은 죽음 중 하나인 가족들과 함께 맞이할 수 없었다. 노인에게 가족은 가장 든든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데 아들도 먼저 보내고 아내마저 없는 김 노인이 의지할 사람도 없고 사회적 안전망도 없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움은 소영이 옆에 있어 줌으로써 위로를 받고 싶었다.

65세 이상 노년기는 에릭슨(E. H. Erikson)이 제안한 심리 사회적 발달의 8단계 중 마지막 단계로서 자아통합 대 절망으로 인생의 마지막 시기인 성숙기에 해당한다 [10]. 노년기에는 서서히 진행되는 신체적인 노쇠, 노환으로 인한 질병 외로움 등 노인 자신에 대한 욕구불만과 상실감이 높아지게 된다. 과거와 현재의 실패를 보상하는 아무 희망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절망의 반대 방향은 통합이다. 통합이란 인생을 실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11].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들을 부정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전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여 남은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로 통합하여야 한다.

3.6 네 번째 죽음, 교도소에서 쓸쓸히 죽어간 무연고 소영의 죽음

다음날 소영은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아래윗집 소외된 사람들과 윤희를 데리고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간다. 평소에는 비싸서 먹을 수 없었던 장어를 실컷들 먹으라며 원하는 대로 사준다. 갑자기 물주라도 물었느냐는 물음에 혼자 쓰면 안 될 것 같은 돈이 생겼다며 소영은 이 소외된 자들 셋을 위해 돈을 쓴다. 마치 세상을 달관한 듯한 표정이다. 그리고 식당에서 송 노인이 죽음을 전하는 뉴스를 접한다. 돈 때문에 노인을 살해한 범인을 쫓고 있다는 뉴스에 사람들이 혀를 찬다. 그러자 소영은 혼잣말처럼 말한다. “그 사람 무슨 사연 있겠지... 아무도 진짜 속사정은 모르는 거거든... 모두 거죽만 보고 대충 지껄이는 거지” 하며 혼잣말을 한다.

소영은 경찰에게 연행된다. 교도소에 수용된 외롭고 쓸쓸한 소영의 모습이 나오고, 결국 소영은 교도소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무연고 납골함이 있는 방에는 '무연고 양미숙 청주여자교도소'라고 쓰여 있는 주인의 이름을 보이며 영화는 끝이 난다.

문학 치료학에서는 작품 서사와 자기 서사의 조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작품 및 작품 서사에 대한 공감은 자기 서사가 무엇인지와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기 서사와 일치하거나 자기 서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으면 공감이 일어난다[12].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거부감마저 생긴다는 것이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죽음을 택하게 되고 그렇지만 혼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곁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김 노인의 바람이 소영에게 공명이 되었다. 공명(共鳴)은 물리학에서 같은 주파수를 가진 두 물체가 있을 때 하나의 물체를 쳐서 올리면 다른 물체도 따라서 올리는 현상을 가리킨다[13]. 그것은 같은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어 어떤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그 작품의 작품 서사와 감상자의 자기서사가 동일하다면 감상자의 자기서사 역시 공명할 것이며, 이 공명 현상을 체험하는 동안 공감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동에 이르게 될 것이다.

소영이 종로 일대에서 만난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죽음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사는 노인들로부터 정말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노인들의 삶에 연민을 느끼며 정말 죽여주는 여자로 변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스위스나 네덜란드, 미국의 오리건 주 워싱턴 주 등 일부 나라에서는 허용되지만 그것도 필수요건이 있어야 하고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고통을 견디지 못한 노인의 요구대로 죽음을 도왔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소영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대가 없이 노인들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제도적인 법을 범하기는 하였지만, 법에 저항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당할 윤리적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담담히 감당한다. 윤리적 규범을 초월한 감싸기 서사로서의 자기서사를 보인다.

최근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증가 추세인데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상당하다. 전체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38.7%에서 2017년 41.5%로 꾸준히 가파르게 증가했다 [1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숫자는 2017년 835명이었고 4년 전인 2013년(464명)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무연고 사망은 홀로 쓸쓸한 임종을 맞는 경우가 많다. 고독사 비율이 80%~90%에 달한다. 사망 장소는 대개 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고시원, 쪽방, 길거

리, 한강 등이다. 존엄한 죽음과는 거리가 멀고 처참한 경우도 많다. 소외된 노인들은 삶도 쓸쓸하게 살고 마무리도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연고 노인은 연고가 없는 노인이 아니다.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이다. 노년기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서사를 돌아보며 좋은 인간관계 맺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4. 영화 작품 서사에 드러난 소외 노인의 삶의 문제와 죽음의 의미

전 세계적으로도 수명이 길어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15] 우리나라는 급진적으로 고령화가 이루어져서 노인 문제에 대비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일부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16]. 소외된 노인 문제는 첫째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의 문제로 경제적 불안정과 둘째 건강문제로서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장기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셋째로 소외와 고독 등 정신적인 문제로서 사회적 고립과 우울을 동반하게 된다[17]. 작품 서사에서 소영이 죽음을 도와준 노인은 뇌출혈로 전신 마비가 된 노인, 치매 노인, 외롭고 희망이 없어서 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노인 등으로 빈곤, 질병, 외로움 등 노인의 어려움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호소하며 죽여 달라는 노인들의 처지나 그 호소에 그들의 바람대로 죽는 것을 도와준 소영이나 결국 모두 영화 속 노인들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다. 정작 그들을 도와준 소영은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할 수 없었다. 자신의 처지도 노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임을 공감하는 자기서사와 접속하여 감싸기 서사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자기서사'는 문학작품을 움직이는 작품 서사나 인생의 저변이나 내면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개인의 서사를 말한다[18]. 곧 우리가 작품을 통해 다루려는 삶의 문제가 인간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느 작품이 가진 서사는 특정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한 문제와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경향성이나 지향점을 갖고 있다[19].

그렇다면 영화 <죽여주는 여자>의 노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였고 정작 그들이 원하던 죽음을 죽었던 것인

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관한 연구에서 좋은 죽음은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죽음', '원하는 삶을 누리다가 가는 죽음'으로[20].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결과 나온 바 있다[21].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족관계, 임종 시 함께 있어 줄 자식, 잡자는 동안 죽음을 맞는 것 등이었다[22]. 그러나 작품 서사에 나오는 세 노인은 원하는 삶을 누리다가 가는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고,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도 천수를 누리고 가는 죽음도 맞이하지 못했다. 좋은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돌봄이나 지지를 받을 수도 없었고, 임종을 지켜봐 줄 자식도 없었다. 남루한 삶을 살고 불행한 죽음으로 마무리를 한 것이다.

누구나 잘 살다가 좋은 죽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원한다.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망과 경제적 자원의 축소 등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노인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소외된 노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와 사회 관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나아가 죽음이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죽음의 성찰 교육인 죽음 교육이 요구된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의 하나인 치매는 65세 이상의 노인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노인의 수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오는 2026년 한국의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 치매 노인도 빠르게 증가하여 2027년 100만 명, 2050년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치매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23].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치매의 예방과 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소영의 남루한 삶은 교도소에서의 삶보다 못한 것임을 표현한 것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삶이었기에 죽여주기를 요청했던 노인들의 생각과 같은 맥락이다. 먹을 것 걱정 안 할 수 있는 곳, 노인의 빈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소영이 교도소에서 사망했을 때 가족도 친척도 없이 아무도 거두어 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양미숙'이라는 뜻말로 소영의 외로운 삶을 대변한다. 소영의 진짜 이름은 양미숙이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 가명으로 살아온 그녀의 삶의 서사가 보인다. 소영은 살아 있을 때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고 죽음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찾은 것이다. 죽음으로써 오히려 더

고요해지고 편안해진 그러나 쓸쓸하고 답답한 소영의 삶을 따라가게 된다.

한국의 독거노인 무연고자 사망자수는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2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노년의 편안한 삶을 위해 웰 에이징을 위한 준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영화의 작품 서사를 통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노화로 인한 질병 빈곤 외로움과 다가온 죽음 앞의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죽음에 대해서 주인공 소영의 서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이자 삶의 원천인 사랑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소외된 노인들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소영의 자기서사와 작품 서사의 공명을 통해 우리 사회 노인들의 삶과 문제점을 시사한다.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요구를 보여준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일반적인 노인들보다 더 외롭고, 불안한 기분으로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25]. 이러한 1인 가구 노인들의 소외는 빈곤과 질병 우울증으로 확대되어 고독사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26]. 주인공 소영의 서사적 관점의 공감을 통해 영화를 보는 독자들도 공감하게 된다. 문학을 통한 공감과 연민은 단지 감상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과 인간사를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진다[27]. 영화를 통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 들고 죽음을 맞이한다.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고 좋은 마무리를 하기 원한다. 작품 속 노인들이 괴로운 현실보다는 죽음을 선택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인간으로서 끝까지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다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행복하고 편안한 노년을 위해서는 보다 젊을 때부터 노년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영화 속 작품 서사에는 빈곤, 질병, 치매, 외로움, 죽음의 두려움 등 노인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살고 싶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근대화의 격동과 시대적 어려움을 겪어 온 노인들은 자녀들 교육하고 당면한 어려움과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 노후준비도 하지 못했고,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성찰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혜택을 입고 자란 자녀들조차 부모세대를 돌보는 책임을 질 수 없고, 그들도 자기 앞의 삶을 살기에 급급하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필요한 것을 막연히 알고는 있었으나 개인적 준비를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제도적인 교육이나 돌봄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며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후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노인 소외로 인한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질적인 노후준비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노후준비를 위한 건강한 노화 준비 교육과 행복한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존엄사의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28]. 국가적 차원의 소외된 노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사회적 관심과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노후설계를 통한 구체적인 노후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 준비 교육과 웰다잉을 위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Y. J. Seo. (2020). South Korea is getting old and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in five years.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941797_32647.html
- [2] Percentage of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2021), Statistics Korea
- [3] Mortality by major cause of death per 100,000 people (OECD)(2020), Statistics Korea
- [4] J. I. Park.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terary Therapeutic Theory, Kyung Hee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a study of humanities*, 42(0), 7-42 DOI 10.35559/TJOH.42.1
- [5] D.H.Shin. (2016). A Study for Extension of Narrative Theory in Literary Therapeutics Re-definition of Seosa and Dualistic World of Seosa(Story-in-depth), *Journal of Literary Therapy*, 38, 9-64 DOI 10.20907/kslt.2016.38.9
- [6] M. Nussbaum. (2015). H. J. Cho. translation, *Emotional*

- Turbulence 2 Pity*, Seoul: a new wave. 561~578
- [7] W. J. Park. (2018). A Study on the Solution of Elderly Problems in the Change of Social Relations in the Old 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fare Practice*, 9(1), 178-199
- [8] Dementia-Woodwiki-http://naver.me/GpPSKnGZ
- [9] J. A. Kim. (2020). A Study on the Death Consciousness and Literary Therapeutic Way for Sympathy in the Hyangga-Ode to the Deceased Sister, *Journal of Literary Therapy*, 54(0)
DOI 10.20907/kslt.2020.54.141
- [10] E. Erikson. (1995). *Childhood and Society*, Seoul:VintageBooks
- [11] J. B. Park. (2018). *Old Men's Day[2] Unlinked death without funeral...Even in death*.Newspim
http://www.newspim.com/news
- [12] J. U. Chae. (2015). *The Epic Theory of Literature Therapy*, Seoul:Literature and Therapy. 23~115
- [13] D. H. Shin. (2020). Story-in-depth Diagnosis for Literary Therapy : Concept, Compositi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MMSS, a New Diagnostic Tool, *Journal of Literarytherapy* 54, 9-104
DOI 10.20907/kslt.2020.54.9
- [14] B. I. No(2013). *Social problem theory*. Seoul: Changjisa
- [15] W. J. Park. (2018). A Study on the Solution of Elderly Problems in the Change of Social Relations in the Old 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fare Practice*, 9(1),178-199
- [16] S. H. Park. (2017). *Aging Population and Life Care Service Trends*, Seoul,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 [17] D. J. Kim. (2020). Digitaltimes,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0802109958062005&ref=daum
- [18] J. Y. Na. (2020), A Study on the Level Problem and Extension Direction of Deductive System of the Fundamental Epic in Literary Therapeutics, *Journal of Literary Therapy*, 55(0), 9-70
DOI 10.20907/kslt.2020.55.9
- [19] E. J. Kim. (2020). A Case Study on Literary Therapy Using the Fairytale < Two Travelers > : Based on MMSS Examination Analysis and the Shadow Archetype Theory, *Journal of LiteraryTherapy*, 54(0), 217-250
DOI 10.20907/kslt.2020.54.217
- [20] D. L. Min & E. H. Jo.(2017). Concept Analysis of Good Death in the Korean Community, *J Korean Gerontol Nurs*, 19(1), 28-38
DOI 10.17079/jkgn.2017.19.1.28
- [21] I. H. Park. & Y. S. Jung. & S. M. Yeo. & H. J. Yoon. & N. Y. Han. (2002). Perception of a Good Death in the Elderly,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3(6), 769-777
UCI : G704-000343.2002.23.2.022
- [22] D. R. Kim. & S. H. Lee. & S. Y. Ahn. & Y. H. Kim. & C. H. Lee. & K. H. Kim. (2019). A Study on Dying Well Education Needs of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9), 270-278
DOI 10.5762/KAIS.2019.20.9.270
- [23] H. J. Oh. (2020), Effectiveness of Death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the Elderly Residing at Nursing Hom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5(3), 121-145
DOI 10.21194/kjgsw.75.3.202009.121
- [24] J. K. Yoon. (2017). *Basic Concept of Film Analysis*, Seoul: Communication Books
- [25] M. K. Lee. (2012). A Study on Identifying Good Death, Ph.D. thesis, 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Graduate School of Han seo University. Seoul.
- [26] J. I. Kim. & S. A. Kim. & J. Y. Kim. (2021). Convergence Study on the Experience of a Community Based Participatory Research leader using the BeHaS Program for Elderly Living Alone, *Korea Convergence Society thesis paper*, 12(1), 293-303 KDC 502.9DDC608.7
- [27] H. J. Hwang. (2018). The role and the contents of art education for empathy and compassion, *Classical Literature*, (53), 61-97
DOI 10.17838/korcla.2018..53.61
- [28] D. R. Kim. & S. H. Lee. & S. Y. Ahn. & Y. H. Kim. & C. H. Lee. & K. H. Kim. (2019). A Study on Dying Well Education Needs of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9), 270-278
DOI 10.5762/KAIS.2019.20.9.270

장 경 희(Kyung-Hee Chang)

[정회원]



- 2000년 2월 : 서울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2017년 2월 :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교육융합학과 (문학석사)
- 2018년 2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치료학과박사
- 관심분야 : 웰다잉, 웰에이징, 죽음교육, 문학치료,

· E-Mail : 386hee@hanmail.net